

# KT, 4차 혁명 핵심 인프라 3대축에 5년간 23兆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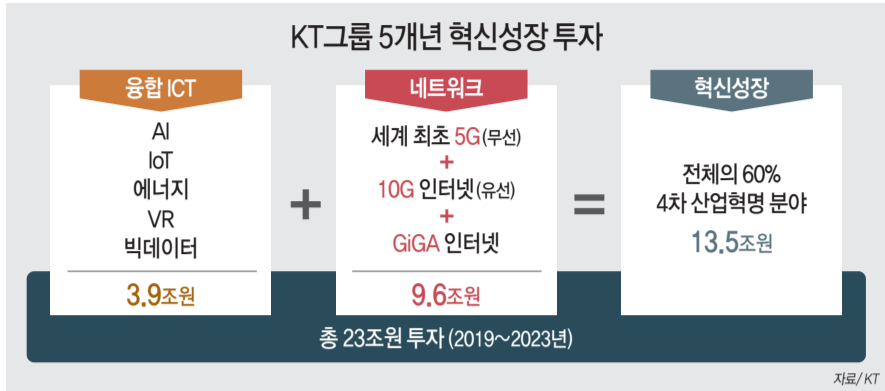
5G | 클라우드 | 인공지능

중소기업 혁신성장 프로그램 지원 등 5G 분야 사업기회·인프라 제공 일자리 창출 효과 14만명 예상

KT그룹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5G,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앞으로 5년간 23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성장도 적극 지원한다.

KT그룹은 ▲혁신성장 고용지원 프로그램 마련 ▲중소기업과의 상생 ▲5G 등 4차산업혁명 인프라 구축에 향후 5년간 23조원을 투자하고, 대졸직 6000명을 고용하겠다는 혁신성장 계획을 10일 밝혔다.

우선 KT그룹은 4차 산업 분야에서 기업의 요구역량에 비해 부족한 구직자의 보유역량 향상을 위해 일자리 창출에 힘쓸 예정이다. 이를 위해 채용과 연계한 혁신성장 고용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신성장 고용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4차 산업혁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맞춤형 무상교육 시스템인 4차산업아카데미, 5G아카데미 등의 교육과정을 만든다. 연간 400명씩 5년간 200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4차산업아카데미는 AI,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에 대한 이론과 실무 교육과정을 제

공하며 5G아카데미는 5G 등 통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기여되는 5G 분야와 혁신성장 분야에서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사업기회 제공 ▲서비스 개발 인프라 무상제공으로 AI, 클라우드, IoT 관련 사업개발을 지원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 등으로 성장동력 확보와

시장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5G망 구축, 장비 공급 및 서비스 개발에 중소기업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규모는 약 2조원대로 추산되며 협업체를 구성해 증계기 등 장비를 개발 중이다.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분야 서비스 개발도 지원할 방침이다. 기가지니, IoT 등 4차산업의 핵심 플랫폼을 개방하고, AI 테스트베드 등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검증 인프라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공동연구개발(R&D)에 100억원, 경영 안정화를 위해 5년간 50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펀드를 지원한다. 앞으로 5년간 KT그룹의 총 투자 규모는 23조원이다. KT그룹은 ▲AI, 클라우드, VR 등 융합 ICT 분야에 3조9,000억원 ▲5G 등 네트워크 분야에 9조6,000억원 ▲IT 고도화 및 그룹사 성장을 위해 9조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반인 클라우드 분야에 5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DNA(데이터·네트워크·AI) 중심의 혁신성장에 직접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5년간 대졸직 6000명을 포함해 총 3만6000명의 정규직을 직접 채용할 계획이다. 5G 등에 대한 투자로 10만명가량의 간접고용 유발이 예상되며 KT그룹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14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KT그룹 황창규 회장은 "5G를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은 KT그룹뿐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에 놓칠 수 없는 기회이다"면서 "KT그룹은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물론 5G, 10기가 인터넷 등 인프라 혁신과 AI, 빅데이터 등 ICT 융합을 선도해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추진에 첨병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metroseoul.co.kr



삼성전자가 글로벌 최대 극장 체인인 Wanda 그룹에 7일 중국 상하이 창닝구에 위치한 '아크(ARCH) 원다시네마'에 세계 최초 '오닉스' 스크린 전용의 '삼성 오닉스 멀티플렉스'를 개관했다. /삼성전자

## 삼성, 中 오닉스 스크린 전용 멀티플렉스

완다그룹과 손잡고 상하이에 오픈 영사기 필요없는 시스템으로 구성

삼성전자가 글로벌 최대 극장 체인인 완다(Wanda)그룹은 지난 7일 중국 상하이 창닝구에 위치한 아크(ARCH) 원다시네마에 삼성 오닉스 멀티플렉스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중국에 본사를 둔 완다그룹은 2017년 포춘 선정 세계 500대 기업 중 380위를 차지한 글로벌 기업으로 1551개 극장과 1만 6000개 상영관, 박스오피스 관람객 점유율 12% 등을 기록한 세계 1위 극장 체인이다.

아크 원다시네마는 총 6개관으로 구성된 세계 최초 오닉스 스크린 전용 멀티플렉스 영화관이다. 전 상영관이 영사기가 필요 없는 삼성전자의 시네마 LED스크린과 하만의 JBL 오디오 시스템으로 구

성됐다.

이 극장에 설치된 오닉스 스크린은 가로 5미터 세로 2.7미터 크기에 2K(2048×1080) 해상도와 HDR 영상을 지원한다. 기존 영사기 대비 약 10배 이상인 300니트 밝기와 선명한 화질을 실현한다. 또한 모든 영화관에 3D 시네마 스크린을 적용해 2D뿐만 아니라 3D 입체 영화도 상영할 수 있다.

각 상영관은 50~60석으로 구성된 영화 상영 이외에도 소규모 행사 등 고객 맞춤형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프리미엄 상영관으로 운영된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김석기 부사장은 "중국 시장에서 오닉스 스크린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면서 "전 세계 영화 팬들이 오닉스 스크린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변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병도 기자

## 현대위아, IMTS 2018서 신기술 대거 공개

현대위아는 10일 미국 시카고 맥코믹 플레이스에서 열린 국제공작기계 전시회 'IMTS 2018'에서 첨단 공장자동화 시스템과 공작기계 신제품 5종 등 총 11종의 공작기계를 공개했다.

현대위아는 이번 전시회에서 새로운 공장자동화 시스템 'PLS'를 선보였다. PLS는 작업자가 해야 하는 가공물의 이동과 적재를 자동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이다. 공작기계가 가공을 한 뒤 PLS를 이용해 적재공간으로 제품을 옮기고, 새로운 가공 소재를 공작기계에 올려 다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현대위아는 작업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가공작업을 할 수 있도록 PLS를 구성했다. 우선 PLS에 딸린 운영모니터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팔레트의 움직임과 적재 현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PLS와 연결된 공작기계가 어떤 가공을 진행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생산 스케줄링을 조절과 공작기계 공구관리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국내 공작기계업체 중 최초로 ISO(국제표준화기구)의 '디지털 트윈 제조기술'과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iRiS'도 선보였다.

/양성운 기자 ysw@

## SK종합화학, 국내 첫 패키징용 친환경 접착제

라이온켄텍과 생산... 동반성장 목표 별도 설비 필요없어 원가 절감 효과

SK종합화학이 친환경 소재 시장 확대에 나섰다. SK종합화학은 협력사인 라이온켄텍과 함께 국내 최초로 친환경 접착제를 생산한다고 10일 밝혔다.

SK종합화학이 친환경 접착제 핵심 원료인 폴리올레핀 소재를 열분해 독자 기술을 보유한 라이온켄텍에 공급하면 라이온켄텍이 생산하는 구조다.

SK종합화학은 별도 설비 신설이 따로 필요하지 않아 원가 절감 효과를 노릴 수 있다. 동시에 라이온켄텍은 안정적인 수의 창출이 가능해진다. SK종합화학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고 양사의 동반성장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기존 접착제는 일반적으로 EVA(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를 원료로 사용했다. 하지만 제조 과정에서 유해가스가 생성되고 접착제가 굳은 후에도 특유의 냄새가 발생하는 단점이 이어지면서 최근엔 기존 문제점을 개선한 친환경 접착제 수요가 늘어나는 중이다.

이러한 시장 변화를 감지한 SK종합화학은 자체 기술로 상용화한 고성능 폴리올레핀 '넥슬렌'을 활용해 친환



경 접착제 원료를 개발, 지난해 말 상업 생산에 돌입했다. 해당 제품은 무취에 위생성이 뛰어나 식품용 포장 소재 및 필터 분야에 사용이 가능하다. 또 포장재 접착 후의 내한성이 우수해 폭염 시 야외나 실내 냉동조건에서 유통·보관 중 파손돼 버려지는 포장물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다.

SK종합화학이 패키징용 친환경 접착제를 개발한 것은 국내에서는 최초이며, 세계에서는 다우케미칼에 이어 두 번째다.

현재 국내 시장 외 북미, 유럽, 중국에 판매 중이며 향후 친환경 제품 수요가 풍부한 선진 시장을 중심으로 점유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SK종합화학은 협력사와 동반성장

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동시 창출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이번 친환경 접착제는 SK종합화학이 협력사인 라이온켄텍이 개발 초기인 2014년부터 공동 개발한 제품으로 앞으로 양사는 차별화된 제품을 공동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판매는 양사가 보유한 마케팅 네트워크를 극대화해 각각 진행한다. 친환경 접착제는 SK종합화학에서 판매하지만 동일한 설비를 통해 선택적으로 생산이 가능한 탄성 왁스는 라이온켄텍이 판매한다.

한편 SK종합화학은 지난 6월 강도가 크게 개선된 신규 고결정성 플라스틱(HCPP)을 개발하는 등 친환경 제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 두산중, 1.5조원 인니 화력발전소 MOU

자바섬에 자와 9·10호기 건설 예정

두산중공업이 인도네시아 IRT(PT. Indo Raya Tenaga)와 자와(JAWA) 9, 10호기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발주처인 IRT는 인도네시아 전력청(PLN) 자회사인 인도네시아 파워(PT. Indonesia Power)와 석유화학기업 바리토퍼시픽(PT. Barito Pacific)이 공동 출자해 만든 특수목적법인이다.

이번 MOU는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국빈 방한에 맞춰 이날 개최된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 포럼'에서 체결됐다. 이 행사에는 인도네시아 아르랑가 하타토 산업부장관, 토마스 트리카시



10일 IRT의 삼토 아지 누그로호 CEO(가운데), 피터 위자야 이사(왼쪽), 두산중공업 윤석원 EPC BG장이 인도네시아 자와 9, 10호기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MOU 서명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두산중공업

렘봉 투자조정청 청장, 삼토 아지 누그로호 IRT CEO,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두산중공업 윤석원 EPC BG장 등 양

국 정부 및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자와 9, 10호기 석탄화력발전소는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약 120km 떨어진 자바섬 서부의 칠레군 지역에 1000MW급 USC 2기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다. USC(Ultra Super Critical, 초초임계압) 화력발전은 터빈에 유입되는 증기의 압력이 246kg/cm<sup>2</sup> 이상 증기온도가 593도 이상인 발전소로 증기의 압력과 온도가 높을수록 발전 효율이 높아져 연료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친환경 고효율 발전 기술이다.

두산중공업에 따르면 총 공사비는 1조 9000억 원, 두산중공업 수주금액은 약 1조 5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두산중공업은 자와 석탄화력발전소 수주를 위해 국제경쟁 입찰에 참여했고 지난 6월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돼 수주의향서를 받았다. /정연우 기자 yw964@